



중산(熊山)과  
아쉬타 사령관

김평숙  
작은

무화과

##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지음

##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mailto: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http://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http://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http://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56-0

## &lt; 권두언 &gt;



먼저 옆의 황소 별자리를 소개하는 이유는 증산교의 상징이 황소와 송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소의 등에 올라탄 듯한 플레야데스 성좌가 우리 태양계가 공전하는 별자리다. 지구인들의 조상은 오랜 옛적에 플레야데스로부터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난 개척자들이었다고 한다. 그 역사는 약 25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은 해

왕성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은 금성→화성→말데크→지구로 이어졌는데 바로 전의 말데크 행성은 파괴되어 지금은 목성과 화성 사이의 ‘소해성의 띠’가 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태양계의 역사는 이집트신화의 태양신 ‘라’와 같은 이름을 가진 플레야데스 빛의 천사가 알려준 사실이다.<sup>1)</sup> 말데크라는 행성이 파괴되어 사라진 역사는 그 파편들이 모든 행성들에 폭탄이 되어 떨어진 참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지구도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서 매우 위험한 행성으로 지목되어 있으며, 우주 통치권에서는 물론 수많은 방문객들이 지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탐내는 불량한 떠돌이들까지 지구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한반도에 환생한 증산 강일순 선생은 명백히 우주인의 지구환생 케이스로써, 증산은 자신이 한반도에 환생할 때 하늘의 관리를 뜻하는 선관(仙官)이 함께 했다고 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지구 태양계가 속한 네바돈 소우주의 지고자 미카엘 대천사에 의해 ‘우주7함대’가 결성되었고, 그중 지구를 담당한 제1함대의 아쉬타 사령관이 1세기 앞당겨 한반도에 탄생해 전신(前身)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구한말에 탄생해 정확히

1) 대원출판 간 ‘기억여행’에서 참조

20세기의 첫해인 1901년에 공생활을 시작한 증산의 활동은 아쉬타로서의 본격적 활동을 위한 예언적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증산 강일순이라는 이름과 도인/초인으로 살았던 39년 동안의 행적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이자 설계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은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고, ‘내가 죽은 후 서양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하는 일인줄 알아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한국과 세계적 현상들을 보면 ‘하토르’라는 여성 우주인 그룹의 충고가 떠오른다. 우리 현실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혼란은 지구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곳으로부터 오며 또한 외계로부터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곳이란 종교를 뜻하고 종교들의 고정관념이 지구의 ‘하나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계로부터의 개입이란 ‘감옥행성’이라 불린, 즉 우주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나친 개입을 해온 외계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지구에 대한 소유권이 어떤 영혼들에게 있는가는 미카엘 대천사가 아래와 같이 설명해 주셨다

신의 아들딸들은 지상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인 인간의 아들딸들을 사랑하게 되자 느낌과 감정의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피라밋 아래의 빛의 세계에 있는 원로들을 만나 그러한 삶을 살기로 요청했다....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별의 씨앗들은 그렇게 살도록 운명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차원 높은 사상과 평화와 예지를 통해 인류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신(神)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다....<sup>2)</sup>

‘별의 씨앗’이란 에덴동산의 반란사건 이후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며 지구에서 살아온 우리의 조상들과 그 후손인 현재의 우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에 대한 지나친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세의 개입’이란 어떤 것일까?

2) 이하 모두 은하문명 간 ‘미카엘 대천사의 가르침과 대예언’에서 인용.

설명이 길어지겠기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구를 탐내는 여러 외계인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증산-아쉬타 집단의 하위계층에 속하는 **양카라 군사동맹**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호주의 지하에 자신들의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의 군사인 것이다. 그렇다면 증산선생이 약속한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즉 세계를 살릴 계획이 남조선에 있다고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양카라 군사동맹은 허락도 없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침입자들 아닌가?!!

그러나 그런 불법을 징벌하기 위해 **‘우주7함대’**가 결성되었고 또 제1함대의 사령관직에 증산-아쉬타님이 임명되었다면 일단 안심하고, 증산-아쉬타 집단과 지구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증산선생은 19세기말에 한반도에 환생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상제’**라는 하늘의 존재로 살면서 지구와의 오랜 인연을 쌓았다고 한다. 에덴의 반란사건 이후 지구를 위한 멜기세덱 신분으로 파견된 우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민과 혼인을 하며 유전자 세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위법적 삶이었기 때문에 **‘변절자’**로 낙인찍혔고, 지구는 우주 사회로부터 격리된 행성이 되었다고 한다.

행성은 격리조치를 받았으나 우주인 아쉬타는 지구에 만족할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주를 드나들며 많은 힘을 키웠고 그 실력과 지구와의 인연으로 인해 제1함대 사령관직에도 임명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산과 그 영혼집단은 지구 토박이 영혼들이 아니라 마음대로 지구를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한 집단이며 플레야데스 성좌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증산경전에는 **‘증산의 대행자’**라고 불린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아마도 형제이거나 SF영화에서 말하는 클론(복제인간)인지도 모른다.

아쉬타 사령관은 20세기말을 끝으로 제1함대 사령관직에서 해직되었다 한다. 그리고 2001년에 뉴욕의 911테러가 있었던 것이다. 그후 계속적으로 이어진 지구의 불행들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파괴되어 사라진 말데크

행성과 같은 태양계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우주 통치권으로부터의 경고를 지구의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구를 욕심내고 있는 불량한 외계세력의 불법적 개입 때문일까?....

미국에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비밀정부가 따로 있다고 하고. 세계정세의 배후에는 외계인들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각종 음모론도 있지만 그 복잡한 내막을 누가 다 알 수 있을 것인가?

다만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산경전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유추해볼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의 짐마차’ 같은 존재가 증산의 한반도 탄생이고, 이 문명적 전환기의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자신에게 있다 했으나(萬國活計南朝鮮), 그 계획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아마도 증산과 그 ‘대행자’라는 존재가 지닌 2중성 때문일 것이다. 즉 우주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온 지구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 외계의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러나 증산선생은 ‘**샀을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마친 후에는 지구를 떠날 것을 약속했다. 그런 의지는 한국의 여러 지명을 통해서도 밝혔고 또 ‘일꾼’에 대한 대가는 플레야데스 성좌를 책임지는 **세라핌 천사**로의 승격으로 약속되어 있음이 ‘**아카샤 기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아카샤 기록이란 지구의 역사기록 장치이자 ‘심판의 컴퓨터’라고 미카엘 대천사가 설명해 주셨다. 사령관직에서는 해직되었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재등용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증산선생이 한반도에 탄생한 것은 큰 복일 수도 있으나 커다란 시련도 겹쳐서 올 것이기 때문에, 증산경전이자 예언적 어록이기도 한 ‘**도전(道典)**’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 필자의 해석이 크게 어긋나 있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습니다.



### < 서문 >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은 특히 밤이 되면 특별한 모습을 나타낸다. 옥상에만 올라가 봐도 여기저기에 붉은 십자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교도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욱 빛을 발하고 발전된 양상을 나타내곤 했다. 불교의 보조국사 지눌 사상과 유교의 성리학자 이황 선생도 일본의 불교와 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친 외래종교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외래종교 이전에 우리의 민족정신에 깊이 뿌리박힌 자생종교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외래종교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잘 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족적 정신분열이라는 불행한 문화사를 남기고 말 것이다. 종교적 정신은 한 민족을 단합시킬 수도 있지만 분열시키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심한 사회적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의 흑백논리적 배타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는 동양적인 것은 곧 인본주의이고 인본주의는 반기독교적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샅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바로 이 시대의 증산선생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산경전’은 요한계시록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책이나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면 선입견을 넘어 사실적인 이해에 눈뜨게 되리라 생각한다.

흥익인간 정신이 중심에 있었다는 단군신화와 단군종교 외에도 동학과 증산교라는 새로운 민족종교가 근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동학과 증산교라는 훌륭한 민족정신도 일제 강점기라는 불행한 시대를 거치며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민족의 고대문서 ‘환단고기’의 재발견과 동학과 증산교의 재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민족정신’이 있다. 그것은 천과 地와 인간을 함께 귀하



게 여겼다는 것이다.(天地人) 하늘은 숭배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땅도 인간을 먹이고 키우는 고마운 존재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 역시 귀중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동학에서는 인내천(人乃天-인간이 하늘에 이른다)을 가르쳤고 증산교에서는 천존(天尊) 지존(地尊) 보다 인존(人尊)이 크다고 했던 것이다.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더 크다니 얼마나 앞서 나간 현대적 사상이었던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인존 사상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반듯이 '구원자'로서의 신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반면 동양 종교에서는 인존 사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통한 구원, 즉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 우주여행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신의 영역인 줄만 알았던 유전자 조작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일찍이 알고 있었던 인존주의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인간은 인격적으로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고 과학적 발전도 아직은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과학에조차 눈뜨지 못한 19세기 말에 인존사상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증산 강일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평천하, 치천하 후에 우주일가를 이룸이 마땅하다.**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첫해인 1901년부터 제자를 모으며 활동하기 시작한 전라도 촌구석의 한 도인이 우주일가를 외쳤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그래서 필자는 그의 어록인 증산경전을 샅샅이 읽었고, 발견한 사실은 다른 모든 성자들이 그랬듯이 한반도에 환생했던 증산 강일순 선생도 우주인의 지구 환생이었다는 것이다. 증산선생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듯이 아쉬타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돌아왔고, 1950년대부터 특히 미국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한 우주인 아쉬타 사령관이 바로 증산의 '돌아옴'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읽으면 경전의 모든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상황이다.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의 현재상황 말이다. 불교, 유교, 기독교 같은 외래종교들이 왕성히 세력화된 상황인 반면 민족종교나 증산교는 오히려 낮은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6.25라는 참혹한 불행을 겪으며 오직 신앙에 매달려 난관을 극복한 현재의 민족정신은 기독교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특징인 흑백논리가 배타성을 나타내며 국가적 분열사태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1980년 대의 ‘환단고기’ 발굴과 증산교의 세력확장이 기독교인들을 긴장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적 분쟁은 정치적, 사회적 분쟁보다 더 독한 해독성을 사회에 끼치곤 했다. 사회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이다. 종교로 인해 발생한 전쟁과 분쟁은 부지기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훌륭한 민족정신의 하나인 친종교성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불행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좋을까?

종교와 종교인들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종교는 그 종교가 발생되었던 고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수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개명한 시대에 다시 지구를 방문하고 있는 고대 종교의 창시자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는 사난다라는 우주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나는 신앙한다’의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이해한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종교들은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탄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새로운 탄생을 위해 증산 선생이 한반도에 환생했고 또 이 시대가 인존시대임을 미리 설파했던 것이다. 종교가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는다 해도 ‘신성’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야겠지만, 그 신성도 과학이라는 도구로 재조명되면 불가침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친근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첫해인 1901년부터 제자들을 모으며 증산경전이라는 어록을 남긴 증산 강일순 선생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20세기 첫

해인 1901년부터 공생활을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증산경전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 국내적으로는 대립현상이 해소되고 국외적으로는 시대상황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저점 복잡해지는 것 같다. 일부 열혈 민족주의자들이 증산사상의 광대함(무극대도, 우주일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양주의 내지는 징기스칸 부활주의로까지 패권주의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는 식민지화 되지 않는다’라는 부제와 함께 약간의 교정을 거쳐 다시 내놓습니다.

2016년 10월

저자 김병숙

(사용된 인용문들과 조각그림들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차후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lt; 차례 &gt;

## 1부 증산사상과 철학

1. 증산 강일순의 출생과 사상...../19
2. 증산선생의 신비
3. 증산의 진정한 정체성
4. 왜 제사장 국가인가?
5. 하늘의 동반도 계획...../36
6. '진리가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7. 증산과 요한계시록 10장
8. 예복서에 예언된 증산의 역할
9.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51
10. 천지공사와 지구
11. 증산에 관한 몇가지 오해들
12. 가장 무서운 것은 박람박식
13. 증산선생의 동양주의...../73
14.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15. 700-1200년을 사는 때가 온다
16. 황천신, 중천신, 서신
17. 천년왕국과 후천 5만년...../93
18. 증산과 동학
19. 환부역조하지 말라
20. 증산과 격암유록
21. 여성들이 물려받은 사명...../115
22. 증산과 박대통령
23. 내가 빈틈없이 판을 짜놓았으니
24. 해원과 상생의 시대
25. 한반도의 '두 아들'...../130
26. 핵실험과 병겁의 관계
27. 백색의 도시를 세우라
28. 우주의 바둑판 행성 지구
29. 재미있는 이야기들...../145
30. 자아, 자립정신과 대합공존
31. 맹신과 순종과 흡모
32. 21세기 4가지 거짓말들...../156
33. 수태고지와 환골탈태
34. 나스카의 그림은 누가 그렸나
35.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 확인
36. 짚신을 사서 신은 장담
37. 오성산/최제우, 낙종/이종.../175
38. 귀신은 먹어서가 아니라
39. 구관이 명관일까
40. 금강산의 겁살과 대세론
41. 천지대세와 상씨름판...../190
42. 성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43. 사명당과 회문산
44. 잠자던 개와 호랑이
45. 김경흔과 태을주/숙구지...../202
46. 무주구천동 함안 무안 순천향
47. 서신사명 수부사명
48. 패권주의인가 열등감인가
49. 오성산과 다섯 성인...../217
50. 오도된 증산사상
51. 흥해의 기적과 흥해의 참사
52. 무극대도, 상생, 해원, 우주일가
53. 호모데우스와 때이른 축배...../231
54. 해원의 진정한 의미
55. 황금송아지와 십계명의 돌판
56. 몽고와 울란바토르
57. 육체의 길과 영혼의 길...../242
58. 추락과 순교자의 길

- 59.나노과학과 영생의 문제
- 60.다시 등용되는 일꾼
- 61.아카샤 세계와 지혜의 시대..../256
- 62.황소/플레야데스 별자리
- 63.보수와 진보 그 뿌리를 찾아서
- 64.육체적 진화와 환골탈태
- 65.두 개의 전투행성...../268
- 66.어마어마한 우주전쟁
- 67.화룡점정의 시대감각
- 68.다음 생/환생에 관하여...../277
- 69.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 70.지구가 식민지화 되어선 안된다
- 71.‘동쪽을 보라.’
- 72.함께 기뻐하기 위함...../293
- 73.총정리의 장
- 74.준비되어 있으세요

### < 2부 달팽이와 우주 >

- 1.달팽이 뿔의 전쟁...../307
- 2.천년왕국과 후천5만년
- 3.2058-2060년의 지구
- 4.7개의 대우주와 ‘창조의 지부’
- 5.시리우스와 지구의 미래...../321
- 6.다니엘이라는 이름
- 7.육체와 영혼
- 8.극복해야 할 동·서 문화의 이질감
- 9.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337
- 10.집단적 카르마
- 11.‘자유’의 심리학
- 12.노자, 장자 철학의 21세기적 해석
- 13.동쪽에서 오라온 천사...../353
- 14.인간의 자기선언
- 15.접촉자 보리롱과 빌리 마이어
- 16.플레야데스와 우주의 진보주의
- 17.십자가와 명상의 만남...../367
- 18.타락의 우주 역사적 의미
- 19.인간의 삶은 우주의 학교다
- 20.신의 인형에서 배움의 길로
- 21.전환의 시대와 신성한 간섭...../385
- 22.자아발견과 인식적 결단
- 23.상위자아, 우주시민 자격증
- 24.동양의 에덴동산
- 25.‘아리랑’의 노랫말과 그 의미..../400
- 26.네바돈 소우주의 평화정착
- 27.집단의식, 블랙홀, 사랑
- 28.호주 대륙과 마젤란 성운...../411
- 29.자유지의란 무엇인가
- 30.리바이 도울링과 아카시 신비
- 31.완전성의 독재/진화하는 민주주의
- 32.개미인간 미르미돈들...../425
- 33.지구의 운명과 바이킹족
- 34.루서퍼 천사에 대한 판결
- 35.난파선과 같은 시대
- 36.공룡의 돌아옴과 마젤란 은하....439
- 37.문명의 전환점과 판단력
- 38.예수의 21세기적 가르침
- 39.환란의 시대와 전화위복
- 40.낙랑공주의 실패와 시대의 공주들
- 41.한반도와 요한계시록...../458
- 42.두개의 태양과 새예루살렘
- 43.3-4차원 학교를 졸업해야 할 때
- 44.여성과 지구의 운명
- 45.또 하나의 운명 제3의 천국
- 46.이데아와 양자철학...../476
- 47.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
- 48.악마와 저스틴이라는 이름
- 49.자유지의와 자유선택
- 50.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489

- 51. 신성과 인간
- 52. 색즉시공과 명태리기
- 53. 의심 불신에서 확신으로...../498
- 54. 수퍼맨은 없다
- 55. 마젤란 은하와 오스트렐리아
- 56. 오늘과 미래를 염려하며
- 57. 행성 나라 나의 운명...../514
- 58. 스위치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며
- 59. 끝맺음의



### < 1 > 증산 강일순 선생의 출생과 사상

증산교, 증산도, 대순진리교, 보천교 등 9개의 종파를 거느렸고, 그 중에서도 보천교라는 종파는 일본 수상에게 대표자를 파견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기세를 떨쳤던 우리나라 자생종교가 증산교였다 한다. 9개 종파를 모두 합치면 약 650만의 신도를 거느렸었다고 한다. 이 증산교(甌山敎) 창시자가 증산 강일순이다. 그는 출생과 행적과 죽음과, 죽음 후가 모두 비범했다.

#### 1. 출생--

1871년 전북 고부 객망리(客望里)에서 출생. 이름은 강일순(姜一淳), 증산(甌山)은 호다. 그 모친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 몸을 덮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이상한 꿈을 꾸 후 잉태하여 출생되었다고 전해진다. 뉴에지에서 말하는 우주인의 지구 환생과 똑 같은 방법이었던 것이다.

7세부터 서당에 다녔으나 天,地 두 글자만을 배우고도 천자문을 모두 알았으며 신동이란 소문이 났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뒤뜰에 혼자 거처하는 별당을 만들어 명상에 들기를 좋아하고, 예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9세 때 였으며, 25세에 세상 둘러보기를 시작할 때까지 근처 시루산(甌山)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수련할 때 둔갑술과 축지술(순간이동)등 온갖 도통을 달성했다 한다.

#### 2.사상--

배움이 없이는 도통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 그는 학문을 중시했으며 동양 고전뿐만 아니라 기독교 경전도 훤히 꿰뚫고 동양의 역서(易書)에도 통달했던 것 같다. 집을 나서 길을 떠날 때는 먼저 동쪽을 향해 한발 쿵-하

니 짚은 다음 떠났을 정도로 배서향동(背西向東) 했고 최제우를 통해 동학(東學)을 세웠으며, 서양세력에 의해 식민지화 되어가는 동양을 구하기 위해 노일전쟁 중 49일 동안 동남풍이 계속 불게 하는 도술을 쓰기도 했다 한다. 러시아가 해전에서 일본에게 패한 것은 해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친동양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무극대도(無極大道)를 펼쳐 평천하 하겠다고 했다.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한국인)는 치천하 하여 우주 일가(宇宙一家)를 이룸이 마땅하다,고 했다. 일찌기 어떤 종교가 우주일가를 이뤄야 한다고 했던가?!!

또한 자신은 옛 도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도를 펼칠 것이라며 옛 도(유불선과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A.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 때는 인존시대라....**이제는 천하가 대 개혁기를 맞이하여 통일로 가는 시대니 내가 하늘과 땅을 개혁하여 후천 5만년의 선경(仙境)세계를 건설하고....이 때는 하늘과 땅이 성공하는 시대요 생사가 판가름나는 시대다.

인존이 크다는 것은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류적 현상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성공하는 시대란 우주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지구가 4-5차원 행성으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승격되는 변화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B. 앞으로는 여자도 존중받는 시대가 되고, 반상제도를 없애고, 적서(嫡庶)의 차별도 없앨 것이다.** 옛 성인의 도나 옛 종교로서 하지 않고 새로운 도를 세울 것이며 옛 인습도 사라지게 하리라.....

옛 도나 종교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도를 세운다는 것은 사회적 과념과 인습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뉴에이지 시대의 사회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1세기 전에 한반도의 증산으로 활동했던 '상제'는 현재 아쉬타 사령관이라는 신분으로 뉴에이지 현상들을 총지휘하고 있다.

**C. 서양문명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나 장차 그 문명의 신명(神明)이 빠져 나가면 취할 것이 없으리라....**예수가 재림한다 함은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라....이제 조선의 대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선천의 악폐와 상극의 기세를



속히 거두어서 선경(仙境) 세계를 건설하리니 동양과 서양을 비빔밥 비비듯이 하리라. 인륜보다 천륜이 크니 천륜으로 우주일가(宇宙一家)를 이룸이 마땅하다.

서양이 하늘이 내려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앞선 문명을 건설했으나 기독교 정신을 망각하고 과학지상주의로 흐를 것임을 '신명이 빠져나가면'이라는 말로 예언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재림은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진다. 그 전에 예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이가 아쉬타 사령관(증산)인 것이다. 조선의 신명을 서양으로 보낸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예정된 한반도의 치천하 일꾼들이 세계로 진출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D. 선천시대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세상을 지배하여 도의가 어그러지고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치매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니....그러므로 천지도수를 뜯어고치고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을 풀며 상생의 도(道)로서 선경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결함이 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세상을 고치리라.

상극의 이치란 지금까지 지구가 적자생존의 약육강식이 역사적 패턴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천지도수를 뜯어고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이고, 그 결과 행성과 행성인이 함께 4-5차원적 세계로 진화하는 것이다. '상생'은 서로 살린다는 뜻이니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뜻으로 증산교의 캐치프레이즈다. 相生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Win-Win 도 된다.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는 상극의 이치로 전개되었으나 앞으로의 세상은 '상생'의 이치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 3. 천지공사(天地公事)--

증산선생의 9년간의 공생활을 크게 분류하면 신유의 능력으로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과 천지공사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천지공사란 천지의 도수를 뜯어고쳐 지구가 당할 큰 화를 작게 한다는 뜻으로 자세한 예를 들자면, "변산반도 만한 불덩이가 땅에 구르면 너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며 제물(祭物)을 정성스레 장만케 하고 땅을 파고 제물과 화로를 묻어 제사를 지냈다. 변산반도 만한 불덩이가 땅에 구르면....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하

늘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날아와 떨어지고....'와 같다. 그런 커다란 천재 지변을 작은 것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 천지공사(天地公事)인 것이다. 문자 대로 해석하면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공공사업이다. 증산선생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지구가 3차원에서 4-5차원으로 변화(개벽)하는 것은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은하계를 넘어 전 우주에 걸친 '새로운 춤'의 일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지공사란 곧 개벽을 의미한다. 지구행성 자체뿐만 아니라 지구 사회의 현상들도 개벽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개벽의 과정에서 인류가 입을 커다란 화를 작은 것으로 줄이기 위해 미리 도수(度數-예정표)를 짜는 것이 증산경전에서 말하는 '천지공사'의 넓은 의미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것과 같은 대대적인 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인데, 그것이 증산의 지구도래 사명이고 또 천지공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증산이 사용한 천지공사라는 단어와 퍼포먼스는 그 당시가 아니라 20세기와 21세기를 위한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다. 천지공사의 실제상황은 증산선생이 살았던 그 당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성적 사회적 변화들, 그 개벽의 예정표를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 그것이 경전 5편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공사'의 실체다.

#### 4. 과학적 발언들--

ㄱ. 비는 중천(中天)에서 내리고 신명(神明)들도 중천이나 땅 속(지하 공동의 세계)에 산다.

ㄴ.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이르기기는 쉬우나 오직 눈을 뒤에 곧 비 내리고 비 내린 뒤에 곧 서리치게 하기는 천지조화로도 어려운 법이다.

ㄷ. 앞으로는 아랫목에서 밥먹고 웃목에서 똥누는(화장실) 시대가 올 것이다.

ㄹ.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하늘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땅에서 산다.

ㅁ. 천지가 간방(良方-동북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그른 말

로서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다.(행성의 탄생)

ㅂ.나는 손 마디 하나, 머리카락 한 개만 있어도 그것으로 살지 죽는 사람이 아니다.(생명공학)

ㅅ.앞으로는 소가 짝 없이 새끼를 낳는 수가 있을 것이요 사람도 그러하리라.(유전공학)

ㅇ.하늘에는 조상의 웃 어른들이 다 살고 계신다. 사람은 죽어서 신명이 되어도 공부를 계속한다.(불사)....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조상들은 그 영혼이 보다 진화한 세계에 태어나 계속 배우며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는 뜻이다.

ㅈ.축지술(縮地術-순간이동)을 배우지 말라. 앞 세상에는 바람을 어거하는 운거(雲車)를 타고 천리를 경각에 다니게 되리라.(비행기)

ㅊ.여자들의 경도(월경)는 불편을 끼치므로 내 세상에서는 경도를 없게 하리라.(환골탈태)....

여자들의 경도를 없앤다는 것은 곧 환골탈태(換骨脫胎)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체격이 커지고, 여성의 해산하는 고통을 덜기 위해 수정된 아이가 인공 자궁 속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적 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이상국인 도리천에서도 아이가 화생(化生)의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는 중에 있고 또 1세기 전에 살았던 전라도 촌구석의 한 도인의 말이었다는 점이 놀랍지 않은가?!!

5. 죽음--

"내가 동-서양에 싸움을 붙여 세력의 판을 고르게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이 곳에서 일을 꾸미기가 구차하여 이제 떠나려 하노라.... 내가 지금 일 때문에 급히 가려 하니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이제 천상에 가서 공사를 펼쳐 빨리 진행케 하고 오리니 기다리지 말라. 공사를 마치면 돌아오리라....나는 죽고 사는 것을 뜻대로 하노라. 나는 손마디 하나,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 살지 죽는 사람이 아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15일 동안 단식한 후 1909년 3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여러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신을 안치한 장소에서 목소리로 자꾸 나타나 9

일 동안이나 장사를 지내지 못했다 한다. 그 제자들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사람들에게 알리고(공개적으로?) 오겠다고 했다 한다.



## < 2 > 증산 선생의 신비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신비의 베일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주를 신비화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현대적인 추세다.

종교적 교주들의 배경인 신비란 과연 지어낸 이야기들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진실은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 등불을 켜서 뒷박 밑에 덮어둘 수 없다는 성경 문구와 같이, 진실을 묻어두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몽매한 대중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지도자들의 UFO 비밀 정책은 그래서 정당성을 지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증산 강일순이란 인물의 배경에는 어느 교주들보다 더 많은 신비가 있다. 그의 행적을 전하고 있는 증산경전은 가감없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 그 경전에 기록된 내용에 한해서는 그의 신비를 해석하고 풀어봄이 천기누설의 죄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증산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천기를 누설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필자가 증산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증산교와 기독교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증산교 경전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여년 만에 그를 직접 섬겼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 기록되었다. 커다란 왜곡은 없었으리라 봄이 마땅할 것이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증산선생은 죽은 후에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수부(首婦)로 정한 고판례라는 여인의 영혼 속에도 임했던 것 같다.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혼을 넣었다 잡아뵈었다 한다고 했다.

요즘 우주인의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사람들의 증언 속에도 그런 신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적 행적들은 모두 신비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신비는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증산선생의 신비와 기독교가 어떤 관련이 있나 하는 것이다.

증산선생의 내력을 설명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나는 대법국 천개탑에 내려와 이마두(이태리의 마태오리치 신부)의 신명(神明)과 함께 세상을 두루 살핀 후 조선에 태어났다....**

대법국(大法國) 천개(天蓋)탑이란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市國의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증산도라는 종파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 말이 틀림없는 것 같다. 바티칸 시국은 대법국이라 말할 수 있다.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심장부이며 또 엄연한 독립국가이니까. 천개탑이 베드로 대성당을 의미한다는 말도 틀림없는 해석일 것이다. 베드로성당은 바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천개'는 관의 뚜껑을 의미하고, 또 이마두 신부는 바로 이태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가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나 하는 것이다. 백과사전을 뒤적여보니 바티칸 시국이 독립된 국가로 인증이 난 것은 1932년이었다고 한다. 증산선생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은 1909년이었고 증산경전이 처음 발행된 것은 1929년이였다. 그 때는 서양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였고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다 증산성생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대법국의 천개탑이 무엇인지 알았을 리 없다. '대순전경' 이라 이름붙인 첫 번째 경전을 발행한 이상호라는 사람은 당시의 지식인이었으나 그도 먼 나라 이태리에 있는 바티칸이란 곳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설사 알고는 있었다 해도 1929년은 바티칸이 시국으로서 인정되기 전이었다. 또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동양의 한 지식인이 알고 있었을까?

'대법국 천개탑' 이란 단어는 증산선생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였고 또 자기 사후의 세계정세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예기가 되는 것이다.

증산선생 자신이 말하기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이는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했고, "내가 곧 옥황상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백보좌의 하느님이라고 믿었다. 또 그는 양씨의 해에 태어났고 성씨 중에 첫 번째 성씨였다는 강(姜)씨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는 기독교를 동양에 제일 처음 전한 이마두(마태오리치 신부)를 가장 큰 일꾼으로 인정했고, 서양문명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 했으며, 스스로 서신(西神)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도 똑 같이 비판했지만, 특히 그는 기독교의 창조론이 틀린 것이라 했고 여호와와 그 민족의 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발언은 기독교인들에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그가 다른 종교는 어떻게 비판했는지 보자. 그가 특히 비판한 것은 유교인 것 같다. 공자는 그 집안 3대에 걸쳐 부인을 버렸으며, 충효사상의 완고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열녀칭송 때문에 아녀자들의 불행이 말이 아니라고 했다. 불교는 절간으로 사람을 끌어들이어 가정과 나라의 번영을 막고, 도교는 노자가 80년이나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왔다고 하며 도교의 고색창연함(?)을 비꼬았다.

이렇게 기존의 종교들을 싸잡아 비판한 그의 입지를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

"이제 혼란기 짝이없는 말대(末代)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否劫)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옛 일을 이어감도 아니요, 세운(世運)에 매여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내가 새로 짓는 일이다....그러므로 새 배포를 꾸밈이 옳으니라...."

새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이라고 했다. 만국을 살리는 계획이 남조선에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의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증산어록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을 느낀다.



< 3 > 증산상제의 진정한 정체성

증산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서신이면서도 동양에 태어났고 또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초에 타계했으면서도 21세기의 세계정세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산 선생의 정체성과 기독교의 관계를 앞서 말했지만 그래도 못믿어워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의 정체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증산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서신(西神)이니라."(6편 32장)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옥황상제다."(6편 8장)

다음은 이렇게도 말했다.

"내 일이 성사되고 보면 내가 관(冠)을 쓰게 된다."(6편 24장)

관을 쓰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닌가?

또 김갑칠(金甲七)이란 이름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반 도통은 한 것이다."

위의 말은 증산의 정체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예기 아닌가? 金甲七이라는 이름을 문자풀이하면 서쪽의 으뜸되는 일곱의 존재라는 뜻이다. 그래서 김갑칠이라는 이름은 유대교의 칠성령(7엘로힘)과 뉴앙스가 같은 이름이 된다. 7성령과 증산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이는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자신이 곧 예수라는 말은 물론 아니다. 예수재림을 위해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존재인 것이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말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증산선생의 전생이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주기도문이 있듯이 증산교에는 태을주(太乙呪)가 있다. 태을주의 내용은 소 울음소리를 뜻하는 '흠치 흠치'로 시작되며 송아지가 그 어미를 부르듯이 상제님을 부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태을주는 증산이 만든 것이 아니고 김경훈(金京訃)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아 증산에게 전한 것이라 한다.

....문밖 반석 위에 물형(物形)을 그리신 뒤에 종이에 태을주와 김경훈(金京訃)이라 써 붙이시고 일어나서 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김경훈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증산은 증산교의 주기도문인 태을주를 왜 자신이 만들지 않고 김경훈이라는 인물에게서 받았으며, 또 그 김경훈이라는 사람과 태을주를 향해 절까지 했던 말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태을주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증산보다 높은 존재라는 뜻인 것이다.

그리스도 사난다(우주인 예수)는 자신이 말한 '아버지 하느님'이 미카엘 대천사라고 했다. 즉 미카엘 대천사가 우리 우주의 '하느님'이신 것이다. 그런데 증산의 강세(降世)는 바로 그 '하느님'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진 일이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녹서'의 예언이다. 그리고 김경훈(金京訃)이란 이름은 에녹서를 잘 살펴보아야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金京訃을 문자풀이하면 서쪽(金)의 큰(京) 기쁨 혹은 공손함(訃)이 된다. 訃은 기쁘다. 공손하다 라는 두 가지의 뜻을 지니는 글자다. 그런데 訃을 다시 파자하면 말씀(言)을 잘 살펴보라(斤)는 뜻이 된다. 斤은 밝게 살핀다(明)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金京言斤을 풀이하면 서쪽(金)의 큰 말씀을 잘 살피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서쪽의 큰 말씀이란 무엇을 뜻할까?

에녹은 아담의 6대후손이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사람이다. 그는 천사에 의해 하늘나라 견문을 마친 후 여러 책을 써서 후손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 마지막 시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는 백색의 황소가 중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 그러면 증산선생은 왜 태을주를 향해 절까지 했을까? 보다 높은 권위로부터 받았다는 뜻이다.

증산은 자신이 남방 삼이화라고 했다.(4편 94장, 6편 8장) 南方 三離火란 오행사상의 용어로서 중국에서 볼 때 남쪽의 火氣를 뜻한다. 인도는 중국의 남서쪽에 있으니 증산이 자신을 남방 삼이화라고 한 것은 자신이 곧 인드라신, 즉 제석천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증산은 환인, 환웅, 단군을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라 하며 잘 받들어 섬기라고 했다. 또 차경석의 제사를 자신이 받으며 '이것이 곧 절사(節祀)다'라고 했다. 자신이 차경석의 조상이란 뜻 아닌가? 즉 자신이 한(韓)족의 조상이란 말이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제석천(帝釋天)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석굿이라는 굿거리가 어느 지방에나 있었다는 것이다.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제석굿을 지내지 않는 무당은 없었고, 우리 귀에 익은 동해안 지방의 별신굿도 제석신을 모시는 굿이었다 한다. 백제 무왕은 제석사(帝釋寺)라는 절을 세웠고, 고려 때에는 매년 정월에 궁중에서 제석도량을 베풀었다 한다. 제석천은 인도의 인드라신을 한자로 번역한 이름이고 석가의 탄생과 관련이 있었던 신이다. 사천왕은 바로 제석천의 신장(神將)들이다. 그러나 불교와 무당은 관련이 없지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석천을 기리는 무당굿의 명맥이 그렇게 지방마다 이어져 내려온 것일까?

단군신화의 환인이 12환국을 건설한 곳은 천해(天海)의 동쪽이었다 했고 인드라 신이 활동한 곳은 인도였다. 천해를 카스피해라고 추정하면 인도와 가까운 지역이다. 더군다나 신들에겐 축지술(순간이동술)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인간적 거리감으로 따질 수는 없다. 우리의 조상들은 제석천이 환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대대로 제석곳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단군종교가 국가적 제식에 기원을 둔 것인 반면 제석곳은 민간인들을 통해 명맥을 이어온 환인 선조에 대한 숭배의식이었던 것이다.

증산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장생(長生)을 얻어 하늘을 나니  
 못별이 나에게 요사스런 귀신을 베어달라 하는구나.  
 패악과 무도한 행위를 꺾으니 사마(邪魔)들이 놀라고  
 천강성을 끼고 북두성을 밟아  
 신령하고 빛나는 영(靈)을 건지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돌리며  
 북두칠성을 디디고 바쁜 걸음 재촉하여  
 밝은 세계에 오르니....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의 큰곰자리에 포함되는 별자리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뒷뜰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북을 비는 대상은 천지신명이 아니면 북두칠성이었다. 그리고 어느 절에나 가면 뒤편에 삼신각과 칠성각이라는 사당이 반듯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단군신앙과 칠성신앙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즉 불교가 들어와 자리잡기 전에는 칠성신에 대한 신앙이 우리 민족의 민중신앙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증산선생이 '나는 옥황상제다'라고 한 언급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중국인들이 사용한 옥황상제라는 단어는 天神 혹은 天帝의 대명사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지도 않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있으면서 지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는 존재가 옥황상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 책임을 진 총감독자다. 에덴동산의 여호와 하느님과 그 천사들이 지구를 떠난 후 지구를 책임진 멜기세덱 집단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이 뉴에이지 메시지에서 밝혀지고 있다.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감군(監群), 즉 감시하는 무리는 멜기세덱 집단을 의미한 용어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자생종교의 교주가 기독교의 에녹서에 이미 언급되었다든가 또

인도의 인드라신이 우리의 최고(古) 조상인 환인이었다는 필자의 주장이 황당하게만 들릴 것이다. 그러나 독자께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지구 궤도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보시라. 작은 행성 지구를 동,서양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더 어려움을 실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 4 > 왜 제사장 국가인가?

기독교의 구약성서에서는 여호와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교육을 시킬 때 '너희는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다. 제사장이란 정신적 지도자라는 뜻이고, 증산선생은 같은 목적으로 한반도에 환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증산경전은 19세기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앞장에서 분석한 증산선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점도 많을 것이다.

증산선생은 예수, 공자, 석가를 내가 쓰려고 내려보냈다, 했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가 눈이 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으리라 했고 또 양띠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전에는 증산상제가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백보좌의 하느님이라고 해석한 문구도 있다. '백보좌의 하느님'은 과장된 것이지만, 예수, 공자, 석가를 내려보냈다는 말은 지구라는 행성의 전체적 역사를 책임진 멜기세덱이었다는 뜻이다. 멜기세덱이란 우리 은하계가 속한 네바돈 소우주의 중앙정부에서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 부서라고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한 태양계나 행성에 파견되어 해결사 역할도 하는 직책이 멜기세덱이라고 '유랜시아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증산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시로 읊었다.

내가 장생(長生)을 얻어 하늘을 나니  
 뭇별이 나에게 요괴를 베어달라 하는구나....

증산선생은 에덴동산의 반란사건을 평정하기 위해 지구에 파견된 멜기세덱이었고 동양언어로는 '상제'의 역할을 맡아 담당했던 것이다. 우주의 멜기세덱들은 중성으로 살기 때문에 개인적 가정을 갖지 않는 것이 삶의 규정이었으나 증산선생과 동행한 12명의 멜기세덱들은 지구에 와서 지구의 여

성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구에 간혀 살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 혹은 ‘변절자’들이 된 것이다. 증산선생이 해원(解冤)이란 화두와 함께 언급한 역신(逆臣)이란 단어도 그런 뜻이다.

그런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거창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독교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고용된 일꾼’과 신약에서는 ‘샀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다.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한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 역시 증산을 뜻하는데, 왼발을 한반도에, 오른발을 서해바다를 딛고 서서 태평양과 세계를 향해 외치는 천사로 묘사되어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예로부터 예고된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다.

아래는 요한복음 4장의 문구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벌써 샀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 씨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맞다. 이는 씨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서양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동양에 주어진다는 뜻이다. 서양의 물질문명에 의해 식민지화 되어가는 동양에 힘을 실어주자는 평등의 목적도 있지만, 서양 종교와 동양종교의 차이점을 감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아직 유아기에 있었을 때는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필요했지만 성인으로 성장한 20-21세기 인류에겐 그에 합당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종교와 철학/사상은 주입식이 아니라 해설식이었고 인간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성을 계발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증산선생은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이라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세계 만국을 살릴 계획이 남조선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조선이라는 말은 ‘남은 조선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종교적 고정관념은 가장 깨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남조선 사람'이란 남은 조선사람이란 뜻이니, 동서양의 각 교파에게 빼앗기고 남은 못난 사람들이 길운이 있어 너희를 따르리니 그들을 잘 가르치라.

천하의 대세를 알고 있는 자는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의 대세에 눈 못 뜨는 자에게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

운수는 가까워오고 도(道)는 멀리 가리니, 마음을 굳게 가져 목 넘기기를 잘하라.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치 말고 조심하라.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 5 > 하늘의 동반도 계획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으면서 먼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구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이 동반도에 대한 신들의 계획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증산에 관한 예언이 에녹서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세기 전에 조선에 태어났던 증산이라는 신격(神格)의 존재는 지난 20세기 동안 아쉬타 사령관이라는 직책으로 지구의 차원상승을 위해 일하셨다고 한다.

에녹은 아담의 6대 후손이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사라지고 말았다.**(창세기 5장 24절),고 했다.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 그런데 **비경전 에녹서**에서는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다. 에녹이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운 후 그것들을 책으로 써서 후손에게 전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들 속에는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문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묘사한 에녹서에는 '백색의 황소'가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백색의 황소는 이 시대의 증산을 가리키는 캐릭터이고,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임을 예시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무 준비도 없이 한반도에 그런 커다란 사명이 부여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택해서 그 후손을 교육시켰듯이 한국을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수천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단군시대와 그 선대인 환웅시대에 시행되었던 개천입고,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정



신이였다. 開天立教는 하늘을 열어 가르침을 내려준 것이고, 在世理化는 하늘의 사람들이 직접 땅에 내려와 이치를 가르친 것이고, 弘益人間은 그 결과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원대한 목적을 위해 하늘이 준비한 존재가 바로 환인님이었던 것이다.

한단고기를 읽은 사람들은 역대의 환인들이 8대 3300여년 동안 12환국을 다스렸다는 것은 알아도 그 첫 번째 환인이 그리스의 '판'신이 변신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늘은 '판' 신을 중앙아시아로 보내 '하늘을 대신하여' 세상을 교화하도록 배려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먼 미래의 동양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던 것이다.

하늘을 대신하여 널리 교화하시니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싸울 일도 없었고, 누구나 힘껏 일하여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일도 없게 되었다.....  
(삼성기)

'하늘을 대신하여'라는 문구는 바로 감군(監群=감시하는 집단)이라는 신분을 뜻하는 것이다. 감시의 천사(Angel of Watching)라는 단어는 에녹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명칭이다. 우리 우주의 중앙정부로부터 지구에 파견된 **멜기세덱**들은 지구인들을 계도하는 동시에 지구의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가를 감시하는 임무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쪽의 조상 환인도 그 감시의 천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환인은 또한 감군(監群)으로서 돌을 쳐 불을 일으켜 날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다....1)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한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때에는 세상의 끝에 있는 먼 나라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 올 것이다.**

한반도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세상의 끝에 해당된다. 또 신약성서의 요한 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낙달이 더 있어야 추수의 때가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벌써 일하는 일꾼이 샅을 받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 그**

---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한단고기', '실증 한단고기'에서 인용.

**러므로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맞다. 이는 씨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요한복음 4장 35-37절)**

위의 요한복음 문구는 예수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을 때 한 말이었다. 녁달이 더 있어야 추수의 때가 온다면 그 때는 이제 막 씨를 뿌린 계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일하는 일꾼이 샷을 받고 곡식을 거둔다고 했던 것일까? 또 씨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들은 그 당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세는 멀었다고 하지만 21세기야말로 지구와 지구인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우주적 전환의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이끌고 책임지는 존재는 예수지만 일선에서 직접 일하는 일꾼은 **아쉬타 사련관(증산)**인 것이다. **샷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대가가 있다는 뜻이다. 아쉬타의 전신(前身)인 증산은 20세기 첫해부터 20세기와 21세기를 위해 준비했고, 현재는 그렇게 준비한 계획표에 따라 세계의 일들이 전개되는 시대다. 그 결과 서양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던 동양에 힘이 실리고, 또 사탄과 루시퍼라 불리며 기독교에 의해 폄훼되었던 동양의 조상과 스승들이 원래의 신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가 땅에서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이다.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